

보도설명자료

(15.9.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 공기업 빚 1년만에 8조 늘어 (15.9.3. 연합뉴스 등)

1. 기사내용

- 정부 공공기관의 부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빚은 오히려 1년만에 8조원 가까이 늘었다는 분석
-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179조9천671억원으로 전년 172조 1천33억원보다 7조 8천638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으로 기존 해외 자산과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정 시기까지는 부채규모 증가와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
- 이에 따라 '14.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산업부 소관 11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이 '15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17년까지 이를 153%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부채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음.
- 향후,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실적 점검과 리스크에 관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목표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. 끝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 박덕렬 (044-203-5530)

안진호 사무관(044-203-5533)